

카톡 생일알림 “챙길 수 있어 좋다” vs “부담스럽다”



‘생일인 친구’ 서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로 기능 추가 떡볶이 예방·오히려 부담·카카오킴수... 네티즌 갑론을박

“출근길 버스안, 무심코 연 카카오킴 친구목록에 중학교 동창의 생일알림이 떴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는 아니었기에 ‘생일선물을 줘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그때, 친구의 프로필 밑에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아차, 지난 내 생일을 챙겨준 친구였던 것. 다행히 생일선물을 떡볶이(?)하는 파렴치한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카톡은 최근 10.3.5 업데이트 직후 기존 친구그룹 ‘생일인 친구’에서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누가 내 생일선물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선물하기’ 페이지에 들어가 ‘주고 받은 선물 추억’ 탭을 확인해야 했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생일자인 친구가 내 생일에 선물을 줬는지 여부를 생일알림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킴이 9월부터 시작한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 표기를 놓고 최근 사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 생일을 챙겨준 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어 유용하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생일을 축하해줄 수도

있는데 선물 여부가 표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생일선물 ‘떡볶이’ 잡을 수 있어...
대학생 A씨는 최근 생일이었던 동기에게 카카오킴 선물하기로 4만 원 가량의 케이크를 보냈다. 평소 지인들 생일을 자주 챙기는 편인 A씨는 해당 기능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A씨는 “과거에 주고 받은 선물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 주니 훨씬 편하고 지인들의 생일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생일선물을 챙겨줬는데 받기만 하고 모른척 하는 사람들도 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나하나 신경쓰기 피곤해...차라리 안 주고 안 받았으면
B씨는 이번 카톡 업데이트로 인해 카카오킴에서 생일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바꿔야할지 고민이다. 평소 친구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지 여부가 오히려 부담된다는 것이다. 또 지인들 생일을 챙길 때 주로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는 편인데 이런 경우는 반영되지 않는 점도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카카오킴의 꼼수?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 기능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B씨처럼 직접 선물을 전해주려던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이 카카오킴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5년간 ‘선물하기환불수수료’로 약 123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정해진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상품 금액의 90%만 돌려준다. ‘100% 환불’을 받으려면 카카오 내에서 쓸 수 있는 ‘쇼핑 포인트’로 환불 받아야 한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로 매해 1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소비하지 않을 경우 1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카카오킴 새 기능 ‘내게 생일 선물 준 친구’. (카톡설명서 제공)

LGU+, 청년에 11GB 데이터

LG유플러스는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1GB의 데이터 혜택을 제공한다.

데이터 미사용량을 최소화해 거의 쓴 만큼만 지불하는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넛’에서 무제한 데이터 1종을 제외한 나머지 15종에 가입하는 만 19~29세 고객이 이번 혜택 대상이다.

1~9GB 저용량 구간은 기존 데이터 제공량만큼, 10GB 이상 구간은 11GB를 각각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OS 이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LG유플러스의 청년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OS 이용자에게는 앱스토어 승인 이후 제공될 예정이다.

넛 요금제에 이미 가입한 청년 고객은 요금제 변경을 통해 1일부터 30일 이용주기를 다시 시작해야 추가 데이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데이터 5GB 추가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넛 요금제는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 종료 후 정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KT 에이닷 프로농구 생중계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서비스 ‘에이닷(A.)’을 통해 2023~2024 프로농구(KBL) 전 경기를 무료 생중계하고, AI로 주요 장면을 생성하는 등 AI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프로농구 시즌 개막을 맞아 SK텔레콤은 에이닷에 프로농구 전용 홈을 개설하고, 팬들은 프로농구 홈에서 경기 시청은 물론 일정과 순위, 선수 정보, 실시간 스코어, 선수별·팀별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I 하이라이트, AI 송풍, AI 주요 장면 등 AI가 자동으로 편집한 콘텐츠도 제공하며, 이용자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 위주로 보여줄 예정이다.

실시간 채팅으로 농구 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응원톡 서비스도 한다. 이용자가 에이닷에서 “프로농구 보여줘”라고 말하면 중계 중인 경기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열리는 핸드볼 리그도 에이닷에서 데이터 기반 생중계를 제공하는 등 AI를 활용한 스포츠 중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카카오킴, ‘최애 이모티콘 찾기’

카카오킴은 6일까지 ‘최애 이모티콘 찾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용자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결승)까지 라운드별 무작위로 제시되는 두 개의 이모티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찾는 방식이다.

프로모션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는 카카오킴의 정기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 체험권과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카카오킴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물리는 []이다’ 강좌...김상욱 교수 초청

전남대학교가 김상욱(사진)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물리는 []이다’라는 주제로 과학 강좌를 연다.

전남대 물리학과 중성미자 정밀 연구센터(센터장 주경광)는 3일 오후 4시 30분 전남대 용자관 3층 광주은행홀에서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연과학(물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김상욱 교수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물리학의 원리가 생활



김상욱 교수는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 JTBC ‘선을 넘는 녀석들’ 등 TV 출연을 통해 과학 이야기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기심 크면 인내심도 커진다” 美 연구팀 실험 결과

호기심이 크면 결과를 빨리 알고 싶은 조바심이 커질까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인내심이 커질까? 호기심이 사람들의 인내심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답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더 크게 만든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신경과학과 애비 송 박사는 지난달 29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펜로 타코 같은 요리를 그리는 20~30초짜리 동영상에 참여한 실험 결과 사람들은 호기심이 클수록 중간에 그림의 최종 결과를 알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기다리며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송 박사는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를 지켜본다”며 “이 실험에서 호기심이 클수록 사람

들이 즉각 결과를 알 수 있는 ‘스포일러’를 찾게 되는지 아니면 ‘스포일러’를 피하게 되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인기 있는 짧은 요리 동영상에서 영감을 얻어 펜로 타코나 강아지 등을 그리는 30초짜리 선 그리기 동영상 25편을 제작한 뒤 이를 미국 전역의 성인 2000여명에게 시청하도록 했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이 동영상에 대한 호기심과 느낌, 그림이 어떻게 될지 추측해보도록 했다. 시청자들이 최종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스포일러’ 버튼도 배치해 이들이 이 버튼을 누르는지도 조사했다. 실험 결과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스포일러’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림이 펼쳐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2023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국립광주과학관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성황

180여명 참가...인공지능 미래인재 육성 노력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은 지난달 28일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2023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행사를 성료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북구가 공동으로 주관한 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작년에 이어 현장대회로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초·중·고등학생과 부모 1명이 팀을 이뤄 총 1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공지능과 기초·첨단과학 등 분야를 주제로 한 OX 퀴즈부터 사지선다, 주관식 문항 등 다양한 문제로 대결을 펼쳤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올해 인공지능관을 개관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대회로 준비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골든벨 대회는 인공지능과 첨단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영상은 추후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 사이버과학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